

#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김 현 수\*

## 목 차

요약	3.2 새로운 법제도시스템 충분조건
1. 서론	3.3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공리
2. 현대사회와 법제도시스템	4.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모델
2.1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법제도 발전	4.1 새로운 법제도의 구조
2.2 법제도시스템 문제점 분석	4.2 새로운 법제도 운용모델
2.3 문제 심화 분석	4.3 새로운 법제도 구현방안
3.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요건	5. 토의 및 과제
3.1 새로운 법제도시스템 필요조건	References
	Abstract

## 요약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 서비스철학, 법치주의, 도덕치

접수일(2021년 11월 30일), 수정일(1차:2021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7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법제도시스템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축이다. 법제도는 시민 삶의 행복과 사회의 유지 발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생활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연구로서 수행되었다(Kim, 2021a; 2021b; 2021c). 고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현재 법제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성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국가사회의 법제도 시스템을 분석한 후,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많이 오용되었는지 경험을 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가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법제도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대사회 법제도시스템의 근본문제를 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조건

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공리에 기반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로 명명되었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 2. 현대사회와 법제도시스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일시적인 개선시스템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류사회와 세계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법제도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세계의 공통원리를 새로운 시스템이 기반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로서 제시하였다. 이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을 서비스주의로 명명하고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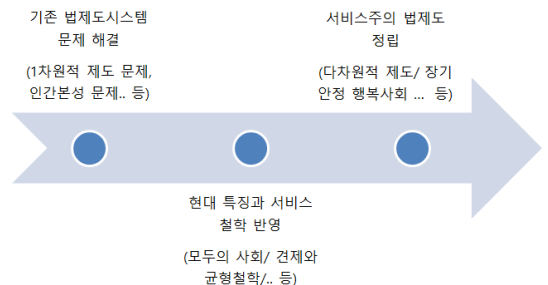


Fig.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Legal System

## 2.1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법제도 발전

고대 및 중세, 근대를 거쳐오면서 인류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왔다. 법제도시스템도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중심으로 시작하는 동양사회와,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한 서양사회는 각기 그 사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해왔다. 중국의 경우, 요순시대부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스템을 시도했다. 요순시대는 군주의 도덕성에 의한 도덕치를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 있고, 전국시대 말기는 법가 사상가에 의한 법치주의가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비자 등에 의한 법치 사상은 통일 중국 진나라에 큰 영향을 주어, 이후 중국사회가 법치주의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Samanchun, 2017; Hanbi, 2019). 서양의 경우도 고대 그리스의 대표도시 스파르타에서 BC 9세기경 리쿠르고스가 스파르타 법제도를 제정할 때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즉 원로원을 구성하여 왕을 견제하고, 동시에 민중을 견제하도록 하였다(Plutarchos, 2019). 또한 돈을 크게 만들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부담되게 만들고, 공동식사를 하게 하며 평등한 사회를 제도화하였다. 법률을 만들었지만 비 성문화하여 청년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기록을 해서 속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양과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스파르타가 500년 이상 리쿠르고스의 법제도를 유지해간 것을 볼 때 사회 유지 차원에서 매우 경쟁력있는 법제도시스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의 뒤를 이어 로마 왕이 된 누마 폼필리우스(BC 715-673 재위)는 자유방임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했고, 당대에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사후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평화가 붕괴되었다(Plutarchos, 2019). 당대에는 좋은 시스템이었으나 곧 문제가 커지는 자유방임시스템과, 당대에는 구축하기 힘들었으나 500년을 지속하는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류사회는 강한 법치와 자유방임 사이를 오가면서 대체로 법치를 강화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시민에 대한 법의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절대왕정에서 법치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는 바람직한 역사 발전의 방향이었지만, 현대 법치주의 기반 국가들도 여러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대다수 국가에서 법치가 뿌리내리고 있으며, 특히 3권 분립에 의한 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력,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권력, 위법을 판단하는 사법권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3권 분립시스템도 노후화되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 법제도시스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법제도에 대해 ‘법의 규칙보다도 의무의 규칙의 편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책임감, 인간성, 관용, 공정, 성실 - 이들 모두는 12표법 외에 있는 것이지만 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가!’ 라고 세네카가 간파하였듯이(Radbruch, 1985), 정교한 법률에 의한 법제도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한계는 뚜렷하고, 문제는 계속 심화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제정치를 하는 국가들에서는 3권 분립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오랜 동안의 노력을 통해 3권 분립을 정착시킨 선진국가라 할지라도 입법 사법 행정 권력 간의 담합 현상으로 권력자와 일반 시민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의와 공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근대사회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이므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 새로운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는 시간, 공간, 인간 관점에서 기존 사회와 크게

차별화된다(Kim, 2019a). 리터러시 증가로 일반 시민의 주도적 역할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크게 증대되었고, 따라서 법제도시스템의 주체가 소수 지식인이나 권력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역할이 창조력과 협업력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모든 시민이 법제도시스템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소수의 입법자(의회 의원 등), 소수의 법집행자(행정 공무원 등), 소수의 법운영자(검사 판사 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법제도 시스템에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2.2 법제도시스템 문제점 분석

현재의 법제도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주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에 대한 근본 가정상 오류의 문제, 법제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 법제도 제정과 운용시스템의 문제 등 3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시스템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의 모든 법제도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가정하거나, 또는 인간의 본성이 본디 착하다는 성선설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구축되어 있다. 인간 자체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법제도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 구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사회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솔론(BC 630-560경)이 아테네의 법제도를 구축할 때, 외국에서 온 아나카르시스는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거미줄에 걸린 놈이 약한 놈일 때는 꼼짝 못하지만, 힘이 세고 재물을 가진 놈은 줄을 찢고 달아나는 것’이라며 비웃었다고 한다(Plutarchos, 2019). 지금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권력자나 부자들은 법망에서

쉽게 빠져나가고, 서민과 빈자들은 법망에 쉽게 걸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법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들을 포함한 관계자들도 인간인지라, 그들이 돈과 권력에 이끌리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제도라도 이를 운용하는 인간들에게 정의와 양심이 결여되어 있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특별한 사회 또는 시대에서 인간들이 선하고 정의로운 속성을 크게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서 항상 그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성선설 및 이성성 가정이 맞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 가설이 성악설이다. 성선설은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악한 경험을 하게 되어 악해진다고 하는 이론인데 비해,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좋은 교육을 통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이론이다. 성선설은 고대 중국의 맹자가, 성악설은 고대 중국의 순자가 주장한 학설이다(Pung, 2017). 법제도를 잘 구축해두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성선설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가 잘 못 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볼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은 성악설이 맞는 가정일 수 있다(Hanbi, 2019).

따라서 법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존 가정인 “이성적 인간, 성선설적 인간” 가정을 재고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대 법제도는 죄의 크기와 양형의 크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순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있다. 권력자나 무권력자나, 부자나 빈자가 동일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일견 이는 공정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사회 차원에서 볼 때, 권력자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도 돈에 기반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권력자와 부자 등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에 법제도 시스템을 사용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위험을 낮추려면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양형을 결정해야 하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사회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가치 전통이 있어, 지금도 도덕성과 양심을 중시하는 일부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부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성숙과 함께 이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사회에서도 고대 중국의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의 경우는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황제 유수의 누이 호양공주의 노복 창두가 살인을 하여 낙양 현령 동선이 그를 사형을 시켰는데, 호양공주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노복을 죽인 낙양 현령을 사형시키라고 황제에게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유수가 현령을 문초하니 현령은 황제 앞에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임을 강변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주에게 사과하라는 요청도 거부하였다. 이에 황제는 현령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상을 내렸다. 이런 처사를 이해 못한 공주가 ‘(황제가) 평민으로 있을 때는 관리들이 두려워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황제가 되고 나니, 일개 현령하나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라며 현령에 대한 조치의 서운함을 얘기하자, 황제 유수가 누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한다.

“천자(황제)는 평민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상관 없이, 천자가 되면 법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행위가 더욱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Jang, 2019)

따라서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도덕성의 크기가

고려되는 법제도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정한 법제도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서민은 보통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권한에 비례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법제도는 대립자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법 제정 및 집행 집단의 대립자인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인 힘이 매우 약한 것이 현재 법제도 시스템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입법자, 검사, 판사, 법 집행 관련 공무원 들에 대한 견제를 대립자인 일반 시민이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사회에서 3권 분립의 엄격성이 약해지고 3권 간의 담합력이 강해지면서, 법집행 및 법제정자에 대한 대립자로서 일반시민 집단의 이들에 대한 통제 활동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여론 형성이나 고소 등으로 약간의 대립자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 기반 취약성으로 한계가 큰 상황이다.

판사, 검사 등 대다수 법집행 관련자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악용해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매우 약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불량한 법제도 집행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과거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치지도자들을 추방할 때 활용하던 시민들의 도편투표제도와 같은 방식의 제도적 균형장치가 모든 법제도 집행자들에게 의무화되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대 거대 국가에서는 행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도 낮아서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모든 존재는 대립자를 가진다. 법제정자, 법집행자, 일반시민이 모두 대립자를 가진다. 서비스철학 기반 사회에서는 이들 대립자 간의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된다. 균형은 한비자식의 포상과 형벌의 균형까지 포함한다. 포상과 형벌이 팽팽한 균형을 이룰 때 사회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

게 되고, 법제도시스템 악용 위험이 낮아진다. 따라서 기존의 1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 대립자간의 팽팽한 균형을 보장하는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법제도를 제정하는 집단과 운용하는 집단 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제정 및 운용집단과 피운용집단 간의 다차원적 균형이 필요하다.

### 2.3 문제 심화 분석

인류사회의 시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시도된 법제도시스템은 크게 법치와 비법치로 양분할 수 있다. 앞서 고대 서양사회의 리쿠르고스와 누마 시대를 비교할 때 제시된 바와 같이, 또 고대 동양사회의 요순시대와 전국시대를 비교한 바와 같이, 양심과 도덕에 의한 자유 시스템과 철저한 제도에 의한 법치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류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역사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2>와 같은 두 모델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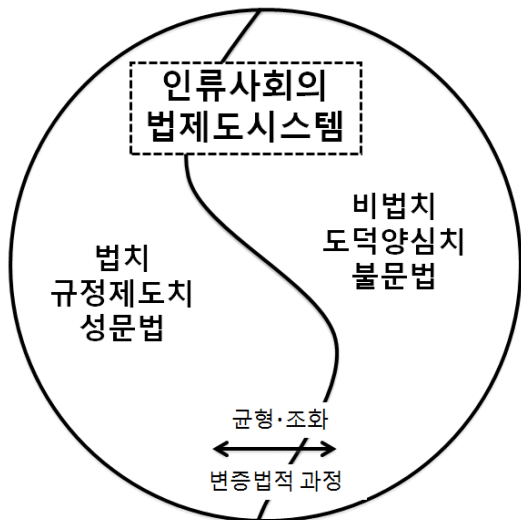


Fig.2-2. The History of Legal System

즉 인류사회는 고대 스파르타와 같은 불문법에

의한 사회, 또 현대 대다수 국가와 같은 성문법에 의한 사회, 그리고 엄격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와 도덕과 양심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등을 모두 경험하였다. 한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면서 그 효용이 다하면 반대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성문법에 의한 국가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의 경우 리쿠르고스시대의 스파르타처럼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가진 법제도와 누마 시대의 로마처럼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법제도를 모두 경험하였다.

현대사회의 법제도시스템은 성문법에 의한 법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양심에 의한 비법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현대사회는 아래 그림 <Fig.2-3>과 같은 법치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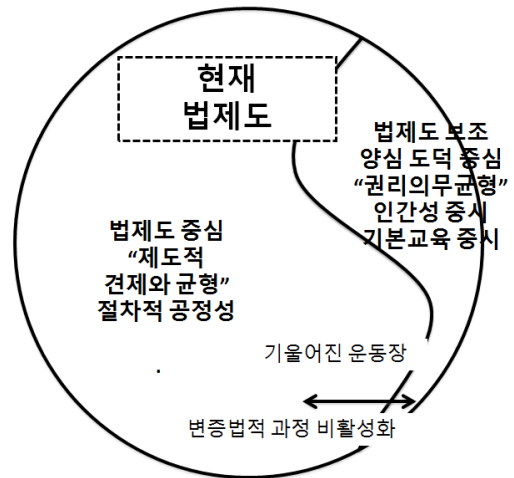


Fig.2-3. A Current Legal System Framework

즉 성문화된 법제도에 의한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저변에 있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의한 사회 정의

와 공정 시스템 구현 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선진국에서 우세한 문화인 성취지향형 문화는 사회의 불법과 불공정을 심화시키며 법제도시스템의 본래 취지 왜곡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취를 위한 돈과 권력의 가치가 우세하고 도덕과 양심의 가치가 쇠퇴함에 따라 법 앞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인 법제도가 잘 정착된 사회에서도 불공정은 계속 심화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현대 사회 법제도시스템의 특징이다. 법제도가 제어할 수 없는 빈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법제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51%를 얻어 승리한 정당이 49%을 얻은 정당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독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40% 이하의 유권자 지지를 얻은 정당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60% 이상 유권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구조다.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모든 법률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고 개헌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법제도의 보호 아래 합법적으로 독재가 가능한 것이 현대 법제도시스템이다.

또한 범집행자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 현대 법제도 시스템이다. 불법과 불공정을 제재할 수단이 사법 판단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자와 이익을 공유하며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통제가 매우 어렵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미루거나 부당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와 재판 권한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의 의무와 제재 조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칙에 의해 권력을 가진 자는 계속 권력을 유지 확장하려는 힘이 강하고, 그 중 일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 현재 법제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 뿌리내린 도덕과 양심 기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이기심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욱 큰 시스템이다.

또한 언론의 편향이 심각하고 시민들의 지성과 도덕성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여론과 정의의 괴리가 클 수 있다. 도덕성과 지성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법제도의 취지 왜곡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비이성적 상대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과 불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연법칙에 의해 불공정과 불의가 심화되어가는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의 생명과 일상생활은 유지되면서 서서히 악화되어가기 때문이다. 사회의 상층부가 무너지는 와해나, 사회의 기반구조인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토붕은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일어나게 된다. 와해와 토붕이 일어나면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다시 정상 사회로 회복하는데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혼란과 고통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와해와 토붕이 일어나기 전에, 즉 파국을 맞기 전에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상적으로 튼튼한 구조와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육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아래 제3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법제도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한다.

### 3.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요건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 법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즉 필요조건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제시한 후 기본 공리를 도출한다.

### 3.1 새로운 법제도시스템 필요조건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는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차원이 단순하여 쉽게 악용될 소지가 크고, 또 운용차원에서 상대주의 폐해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인간이 본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제정되고 운영되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이성성이 큰 인간들로 인해 법제도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시스템하에서는 권력을 잡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이익을 획득하는 방법도 금융이라는 비가시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실물 중심 경제에서는 누군가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면 쉽게 눈에 보이고 뚜렷이 드러났지만, 복잡한 금융자본주의시스템에서는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큰 이익을 쟁취하자는 목적을 공유한 후 담합한다면, 이들이 대중을 선동하여 다수의 표를 획득하여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획득한 권력을 가지고 법제도시스템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취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특히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정치시스템에서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시스템의 취약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사회는 합의에 의해 다양한 정치행정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등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근본이

되는 법제도시스템이 현실적이면서도 견고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인간에 대한 가정에 성악설을 포용하는 시스템일 필요가 있다.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본디 악인일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악설을 반영할 경우, 정의롭고 공정한 법 제정 또는 법운용에 요구되는 도덕성의 수준을 법제도시스템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법제정 또는 법운용을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처벌이 매우 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생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재 권력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한 후, 대중들을 조종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므로, 대중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선동과 조작 능력이 있는 소수인들에게 다수의 대중이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시민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에 따라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Aristoteles, 2020). 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력을 높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후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언론 등의 의도적인 편향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과 감정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인간 본성의 한계도 크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투표권 행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점점 더 선동능력은 있으나, 이기적이고 부패한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상식과 상식이 경쟁할 경우 이익 중심점이 약한 상식이 패배하기 쉽기 때문이다



(Kim, 2021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시스템은 다중 균형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선출직 통제시스템, 유권자 통제시스템, 선출직과 유권자 균형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또한 권력자와 일반시민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일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국민소환제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이며, 위법 행위를 고소하여 징계할 수도 있지만 권력자 집단의 내부 보호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권력자 집단과 일반시민 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따라서 법치보다 도덕치의 중요성이 커진다. 도덕치가 힘을 가지는 경우 권력자를 사퇴시키거나 징계하기 쉬워진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한에 비례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환 또는 파면이 용이할 수 있다.

상대주의 심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법 해석과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자의적인 상대주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법제도 이전의 양심과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기준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면 상대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으로 경제학의 토대를 구축하였듯이, 양심과 도덕성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법제도 시스템의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양심과 상식, 그리고 도덕성 기준이 정립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어야 비로소 법제도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가능해진다. 임의 해석이 쉽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본 조건이 도덕성 기준 확립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비합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립자를 구축하고, 대립자들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시스템의 각 차원에서 대립자들을 정의하고, 대립자들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 통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치와 도덕치, 권력자와 일반시민, 권한과 의무 등의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시스템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력욕은 본능이고, 자본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의 비이성성과 과도한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이다.

### 3.2 새로운 법제도시스템 충분조건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장기 지속가능성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공통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진리는 태극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20a; 2020b; 2019a; 2019b; 2019c; 2019d; 2018; 2017). 이러한 공통 진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구조가 새로

은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통원리에 의해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도(道)가 된다.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이 서비스철학의 구조이며, 법제도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기반 모델이 된다. 즉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자기 자신만이 진리는 아니고,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이 법제도시스템을 장기 지속가능하게 하는 모델일 수 있는 것이다(Kim, 2019a).



Fig. 3-1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또한 공통진리의 주요 부분은 나선형 변증법이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즉 대립자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측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세상의 운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은 아래 그림 <Fig. 3-2>와 같이 나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문제가 누적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립되는 상태로 전환되고, 이 상태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문제가 누적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립상태로 전환되며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가고 변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서비스철학은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과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공통진리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9b; 2019c; 2019d; 2017). 공통원리를 법제도시스템에 반영해야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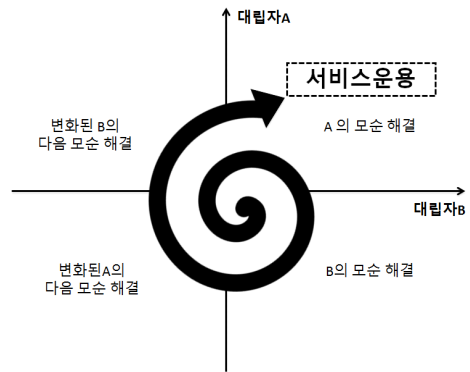


Fig. 3-2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여러 개의 대립자 모델에 의한 변증법적 균형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법치와 비법치(도덕양심치), 권력자와 일반시민, 법제정 및 운용자와 피운용자 등 등의 대립자 그룹이 시공간상에서 서로 팽팽한 균형을 변증법적으로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아래에서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는 법제도시스템을 위한 공통원리를 공리로 제시한다.

### 3.3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법제도시스

템의 공리는 아래와 같다.

[공리 1]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한 이기적인 권력 욕망 추구는 계속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므로 육체적 본능에 의해 행동한다. 자신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획득 전쟁과 발전의 역사이므로 이기심과 권력욕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Plutarchos, 2019; Jang, 2019; Samachun, 2017; Lamprecht, 1992; Yang, 2012; Lao-Tzu, 198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법제도시스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진리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ee, 2010; Lao-Tzu, 1982).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법제도시스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치않는 진리이므로, 법제도에서도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2019b; 2019c; 2019d; 2017; Plutarchos, 2019).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한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Kim, 2021c).

[공리 5]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 을 해 줘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 법제도시스템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Kim, 2021c).

이와 같은 공리와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으로 명명한다.

#### 4.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모델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모든 이념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법제도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법제도시스템의 구

조와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 4.1 새로운 법제도의 구조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공리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1]에 의해 인간은 법제도를 활용하여, 또는 법제도 제약하에서도 끊임없이 이기심을 발휘하고 권력 확장을 추구한다. 제약받지 않는 경우, 무한히 자신의 이기심과 권력을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공리 2]에 의해 법제도시스템에 두 대립자가 존재하며,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진행된다. [공리 5]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방향을 선회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두 대립자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어 가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균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어려우며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기울고, 또 다시 반대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다른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구조이다.

이 대립자들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모델이 서비스주의 법제도철학이다.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법치와 비법치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다. 즉 법률로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과 도덕과 양심에 의해 통제하는 시스템이 함께 운용된다. 법치가 매우 우세한 촘촘한 법체계를 가지면 권력자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들이 많아져서 권력자는 큰 힘을 가지는 반면 시민들의 힘은 위축되고, 권력자 집단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입법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제도 제정 운용 관련자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한편 도덕과 양심에 의한 사회운용이 너무 강조될 경우, 인간 본성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악용하는 선동가나 권력자의 여론 조작에 의한 부당한 판단들이 많을 수 있어 이 또한 위험하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법률과 적정 수준의 도덕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성문 법률에 의한 객관적인 사회 운영이 필요하다. 법치와 도덕치가 50 : 50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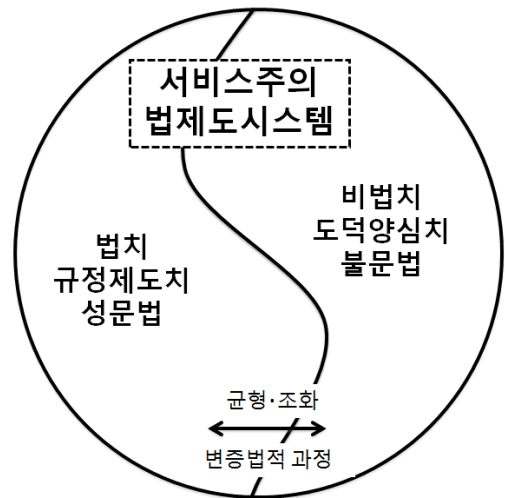


Fig. 4-1 The Servicim on Legal System

또한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에서는 권한의 크기와 권한에 부과되는 도덕성의 크기도 팽팽한 균형을 이룬다.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범죄의 크기와 양형의 크기가 비례한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회에서 권한이 많은 고위직 범법자는 가중 처벌되어 큰 형벌을 받게 되고, 권한이 거의 없는 일반 시민은 일반 양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더 쉽기 때문이다. 고위직의 범죄가 일상화

되면 사회 정의가 유린되고 사회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서비스주의 법제도 철학이다.

이러한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3차원 모델로 아래와 같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양형 } f(x) = ax + b$$

$x$  : 범죄의 크기

$b$  : 양형 기본값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서  $x > 0$  인 경우 공통 적용)

$a$  : 권한 비례 균형계수 (대체로 이산적 값을 가지도록 설계하며 수시 조정. 예를 들어,  $a = \{m: \text{고위층}, n: \text{중위층}, l: \text{일반시민층}\}$  이며 사회 정의의 실현 정도에 따라  $m, n, l$  값을 수시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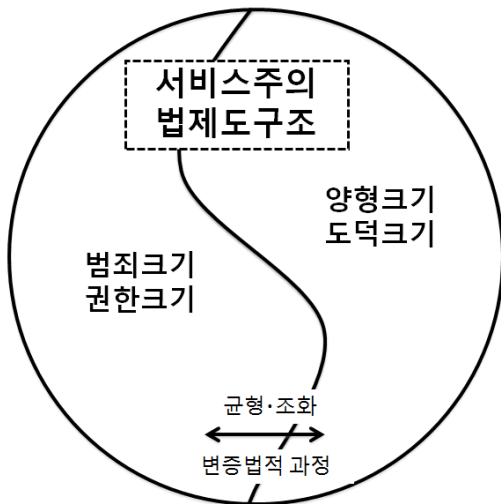


Fig. 4-2 The Legal System Structure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덕성 및 양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범법자와 동일하게 비례 균형계수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이다. 도덕성/양심 의무 수준도 유사하게 수리적으로 모델링된다.

$$\text{도덕성 의무 } g(y) = cy + d$$

$y$  : 사안의 크기, 중요성

$d$  : 도덕성 기본값(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

$c$  : 비례균형계수 (대체로 이산적 값을 가지도록 설계,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

예를 들어,  $c = \{o: \text{고위층}, p: \text{중위층}, q: \text{일반시민층}\}$  로 시작한 후, 사회 정의의 실현 정도에 따라  $o, p, q$  값을 수시로 조정. 불의와 불공정이 심화될 수록  $o$ 와  $q$ 의 차이가 커짐.

서비스주의 철학이 저변에 구축된 시스템은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철학적 기반이 사회 주체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전환이 쉬운 것이다. 두 대립자가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화쟁태극모델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하의 권력자와 시민은 철저히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립면을 공유한다. 권력자는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시민은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상식과 견제 권한을 가지는데, 선출직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시민의 공직자 소환제가 매우 간편해진다. 다만 기본 전제가 되는 시민의 상식적 행동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시민에 대한 교육과 참여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상식 함양과 제도 이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고 시민의 양식과 힘을 강화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권력자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력자와 시민 간의 힘의 균형 모델은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어느 한 상황에서 권력자 또는 시민의 힘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주의 사상이 저변에 구축된 사회와 시대는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철학적 기반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상태 전환이 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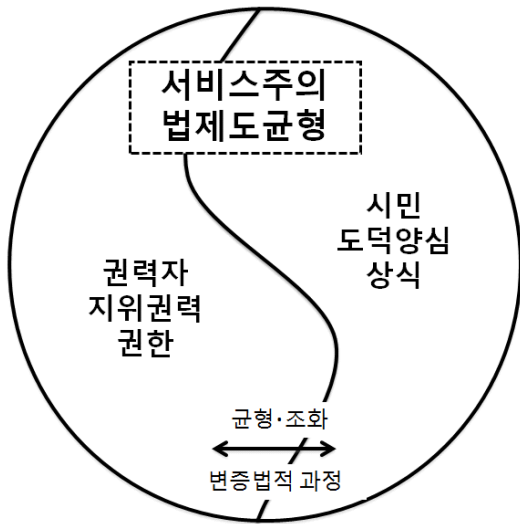


Fig. 4-3 Balancing The Power on Law

이러한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 구조와 앞서 제시한 공리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용모델을 아래에 제시한다.

#### 4.2 새로운 법제도 운용모델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두 대립자들의 상호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립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둔 모델이다.

법치와 비법치의 균형,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힘의 균형, 법제정 및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힘의 균형 유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래 그림 <Fig.4-4>와 같이 나선형 정반합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사회 형성 초기에는 권력자든 일반시민이든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운용을 한다고 가정하는 1/4분면에서 시작한다. 앞서 제시한 비례균형계수는 모든 계층에 동일하다. 권력자의 범

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것이다. 시민이 존중되고 시민의 권력자에 대한 견제력도 강한 상태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1]과 [공리 5]에 의해 권력자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법제도 제정과 운용에서 정의와 공정성이 훼손되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 법치의 폐해 증대와 권력자의 독재 강화, 시민 힘의 약화가 계속 진행된다.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상당히 벗어난 시점까지 진행된다.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국가사회 파국으로 진행되거나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서비스주의 운용모델에서는 사회 전반에 서비스철학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파국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균형 회복 노력이 시작된다. 도덕치, 양심치의 강화가 진행되고 시민의 힘 강화가 시작된다. 권력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제시한 비례균형계수의 권력자 가중치가 매우 높아진다. 권력자와 법제정 운용자에 대한 도덕성 요구도 더욱 높아진다. 2/4분면 사이클로 이동하는 것이다. 2/4분면에서 상당기간 진행되면서,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시민의 힘이 계속 강화되고 권력자의 권한은 위축된다. 도덕과 양심에 의해 사회는 운영된다. 이 사이클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통제되지 않는 시민들의 도덕과 양심 의무가 약해지고, 범법 행위가 증대한다.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다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2]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이전 사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적절한 법치 운영, 선한 권력자 통제 모델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된다. 다시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이기적인 권력자 등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법치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2]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시민과 도덕 양심치가 중심이 된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다시 양심에 의한 법치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하여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 운용모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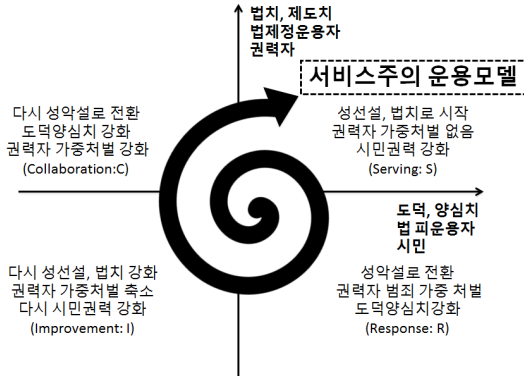


Fig. 4-4 The Servicicism Operation Model

현대 법제도시스템에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두 대립자인 권력자와 시민 중 권력자가 우세한 1/4분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면 법치가 절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도덕치가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래의 3개 효 모두가 음(--))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다. 외형적으로는 법치이지만 내면의 도덕치가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외형적으로 도덕치이지만 내면은 법치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감괘형 시스템이 대다수다. 권력자와 시민간의 힘의 균형도 두 힘 중 어느 한 힘이 절대 우위인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시공간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인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며 균형에서 이탈하거나 균형을 회복해가는 모델이다. 인

간의 이성적인 힘이 강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비이성적인 힘이 강할 경우 균형에서 이탈하려는 힘이 강할 것이다. 앞의 2차원 그림에서의 두 대립자에 현실 세계의 인간 시간 공간 축을 더하면 현실 법제도시스템은 5차원 모델이 된다. 5차원 법제도시스템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최적 솔루션을 찾아내어 운용모델로 활용해야 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 4.3 새로운 법제도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성과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100% 최적 솔루션을 찾아내기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연의 미시세계 불확정성 원리를 도입하고, 거시적 물리세계의 확정성 원리도 도입하여 인간세계의 비이성성과 욕망이 적절히 통제되는 구조를 구현한다.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의 대립면인 권력자와 시민 간의 힘의 균형 정도, 법치와 도덕치의 균형 정도, 법제정 및 운동자와 피운동자 간의 힘의 균형 정도 등을 인공지능이 계산하여 시스템 전환에 적용한다. 두 힘이 차이 나는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내장시킨다. 자연 대리자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인 것이다. 법제도 제정 및 운용 작위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도 인공지능시스템이 객관적 기준과 방법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모든 알고리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불확실성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

이 방식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이 법제도 시스템 통제 권한을 자연과 공유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5>과 같이 자연의 의사결정원리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법제도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자연원리를 대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별도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주요 요소가 되며, 대칭성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구현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자연원리가 구현되므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 개념도 반영하여 시스템이 설계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정 부분 자연의 원리를 수용할 때,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도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연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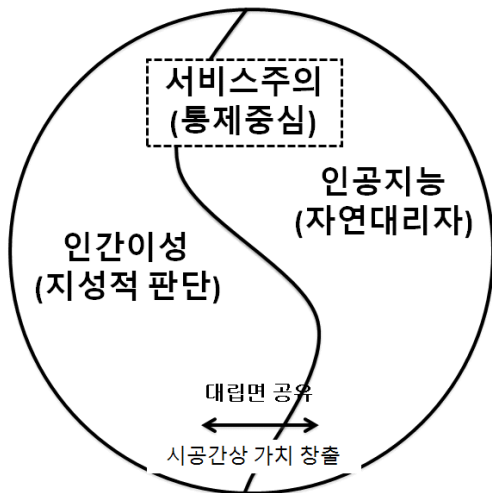


Fig. 4-5 The Servicism Control Model (Kim, 2021a)

##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법제도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역사시대 전체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 행복

모델과 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치 중심, 법 제정 및 운용자 중심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 세계는 법치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현대 법치의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법제도시스템을 분석하고,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법제도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법제도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법제도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인간 본성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법제도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모델로서 서비스주의 법제도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를 제시하고, 운용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화쟁태극 모델로 구조가 도출되고 변증법적 운용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구현모델이 제안되었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Aristoteles(2020), Chun, B. H. Tr., POLITIKA, Soop, (아리스토텔레스(2020), 천병희 역, 정치학, 숲)
2. Kim, Hyunsoo (2021a),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Journal of*



-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3 Sept. 2021, pp.75-97 (김현수(2021a), 서비스주의 사회 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 11권 제3호, pp.75-97)
3. Kim, Hyunsoo (2021b),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2, Jun. 2021, pp.1-19 (김현수(2021b),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 11권 제2호, pp.1-19)
  4. Kim, Hyunsoo (2021c),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2021c),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pp.1-20)
  5. Kim, Hyunsoo (2020a), A Study on the New Management Technology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4, Dec. 2020, pp.101-125 (김현수(2020a), 서비스경제시대의 경영기술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4호, pp.101-125)
  6. Kim, Hyunsoo (2020b), A Study on the Framework of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1, Mar. 2020, pp.1-15 (김현수(2020b),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pp.1-15)
  7.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 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8.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9.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10.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11. Kim, Hyunsoo (2018) New Management of Management, Kookmin University Press, (김현수 (2018), 경영의 신경영, 국민대학교 출판부)
  12.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 105-118)
  13. Lamprecht, S.P.(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g Co.,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4.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5. Lee, Kidong(2010), Lecture on The Book Of Chang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6.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 The

-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0), 열역학 제2  
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17. Radbruch, Gustav(1985), Choi, J. K. Tr.,  
Rechtsphilosophie, Samyeongsa. (라드브루흐  
(1985),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8. Plutarchos (2019), Lee, S. K. Tr., Bioi Paralleloi,  
Modern Intellect. (플루타르코스(2019), 이성규  
역,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 I, II, 현대지성)
  19. Jang, Kwukang (2019), Oh, S. H. Tr.,  
JaChiTongGam, Chusubat. (장귀강(2019), 오수현  
역, 자치통감, 추수밭)
  20. Samachun(2017), So, J. S. Tr., Samachun Saki  
56, Modern Intellect. (사마천(2017), 소준섭 역,  
사마천 사기 56, 현대지성)
  21. Hanbi(2019), Jung, C. K. Tr., Hanbija, Sanjini.  
(한비(2019), 정천구 역, 한비자, 산지니)
  22. Pung, W. R.(2017), Park, S. K. Tr., The History  
of China Philosophy, Kkachi. (풍우란(2017), 박  
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23.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해림(2012), 서양철학  
사, 집문당)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Hyunsoo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the legal system that i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service economy,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social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of mankind's legal system operation in the historical era for the past 5,000 years, a legal system model that will make the future human society sustainable has been establish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analyz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 root cause of injustice and unfairness was analyzed and a new legal system was designed. Through the legal systems of various national societies that have been attemp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that is desirable for the modern society was designed. Hum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how much good legal system has been and is being abused by human irrationality and nonsense, needs to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legal system paradigm itself by learning lessons from failure. This study derives the basis for a legal system that can realize justice and a fair society in the long term. It proposed a model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at allows human society to be happy for a long time. To this end, the fundamental role of the legal system was analyzed at the ideological level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was analyzed and improved assumptions were presented.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as analyzed and a new structure was propo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operation of a new legal system based on a new structure was suggested. The new legal system was named servicism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a model centered on thorough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ll opponents, not a simple linear one-dimensional legal system, but a multidimensional legal system, and because it is a viewpoint that clearly recognizes both human reason and desire. The new system is a model that reflect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non-law rule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wer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a concrete plan for transition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 new legal system.

*Keywords: Servicism, Legal System, Service Philosophy, Rule of Law, Moral Rule*

---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